

# 일본 전후문학과 한국전쟁\*

-훗다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을 중심으로-

김 현 희\*\*

- I. 일본의 전후문학과 역사인식
- II. 전쟁과 혁명-난세의 문학자
- III. 「광장의 고독」에 나타난 ‘국가와 전쟁’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속에서 일본 전후문학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훗다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을 중심으로 한국전쟁과 거기에 얽힌 전후(戰後)의 문제들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이 소설의 배경에는 메이지(明治) 이후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해 왔던 역사가 있다. 그것은 일본의 근대사이기도 하고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근대사이기도 했다. 이 소설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의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사회 및 그 속에서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의 현실을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다.

이 소설에는 ‘커미트’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국가·사회·국제관계를 상징하는 ‘광장’이고, 또 하

---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8015)

\*\* 한양대 강사

나는 개인·가정·인간관계를 상징하는 ‘고독’이라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주인공이 임시직으로 신문사에 나와 일하는 것과 그 배경에 있는 한국전쟁이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조를 좀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전쟁을 계기로 다시 신문사에서 일하게 된 주인공을 중심으로 개인(나)의 문제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매개로 해서 가정(처자)과 국가(사회)를 생각하며 그 속에 얽힌 ‘전후’의 문제까지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전쟁이라는 소재는 훗다 문학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아시아 인식과 대미관계 등 전후 구조의 복잡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 일본의 재군비라는 역코스에 대한 비판과 미군 점령하의 일본 사회의 모순을 그린 이 소설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전후 70년이 되는 현재의 일본과 훗다 요시에가 『광장의 고독』에서 폭로한 한국전쟁 시기의 일본이 오버랩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소설의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 • 주제어

한국전쟁, 전후, 국가, 커미트먼트, 이방인

## I. 일본의 전후문학과 역사인식

볼셰비키 혁명사를 연구했던 E.H.카(Carr)가 『역사란 무엇인가』를 발표한 해가 1961년이다. 같은 해, 구소련에서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려 미국 물리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것은 미소 냉전시대에 강대국 구소련의 새로운 면모를 과시한 대사건이었다.

E.H.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sup>1)</sup>라고 말한다. 이 말은 수도 없이 인구에 회자되어 온 말이지만, 오늘의 세계정세를 보면 이 말이 더욱 실감나지 않을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동서 냉전체제로 들어서며 새로운 현대사가 시작된다. 이후,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냉전체제가 붕괴한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결국 냉전은 과장되고 오해된 미국의 패권에 일부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해는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패전 조서’를 녹음방송한 날로부터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등장한 전후문학은 그동안의 방대한 양의 축적을 무시하고는 문학사 자체를 논할 수 없을 만큼 그 뿌리가 단단해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패전후의 문학은 ‘전후파’로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전쟁이라는 역사적·사회적 사건의 결과가 이들 문학에 그대로 투영됨으로써 전전과는 다른 전후적인 특질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패전국의 문학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연속성을 문제삼는 역사인식에서 볼 때 거기에는 아직까지 정리가 덜 끝난 전후사에 대한 해답의 열쇠가 숨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특히 ‘전후파’ 문학의 전장체험과 패전체험은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더 엄중하고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문학적 과제인 것만은 확실하다. 특히 전후에 있어서의 역사와 현실에 대

1) E.H. 카 저, 박종국 역, 『역사란 무엇인가』, 육문사, 1991, 46쪽.

해 가부간의 결정을 짓고 그것을 자신의 진실한 방식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 그 누구도 출발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후파’문학을 전쟁과 패전체험의 측면에서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후의 일본문학은 패전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가는 대가대로, 중진은 중진대로 각자의 입장에서 문학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 중에서 특히 잡지 『근대문학』을 중심으로 한 문학자들과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제1차전후파’를 중심으로 한 문학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전쟁에 반대하고 국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웠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전후 일본의 현실을 민주주의의 새로운 빛으로 비추어내는 것을 가장 긴박한 과제로 삼았다.

이보다 조금 늦게 ‘제2차전후파’그룹이 등장하게 된다. 여기에는 훗다 요시에(堀田善衛: 1918~1998)를 비롯하여 다케다 다이준(武田泰淳), 아베 고보(安部公房)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패전을 맞이한 공통점이 있다. 다케다와 훗다는 상하이(上海)에서, 아베는 구만주(舊滿洲)에서 각각 패전을 경험하고 돌아와 작가로 출발하고 있다.

그럼 이들이 ‘제1차’에 속하지 않고 ‘제2’의 그룹에 속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이들은 패전후 상하이에서 곧바로 일본에 귀환하지 못하고 늦게 돌아옴으로써<sup>2)</sup> 문학적 출발도 늦어졌다. 이들에게 있어 상하이나 구만주는 문학적 출발을 늦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의 체험이 이들의 작가로서의 출발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패전 직후에 상하이나 구만주에 남아 있으면서 국가가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경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일본 전후작가의 특징은 패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패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역사에 대한 작가의 기본적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문학을 동아시아 전

2) 다케다 다이준은 1946년 4월에, 아베 고보는 1946년 11월에, 훗다 요시에는 1947년 1월에 각각 귀환했다.

후사의 맥락에서 고찰해 보면 그 속에서 전후라는 시대적 의미가 차지하는 위상이 어떤 성질을 갖고, 또 그것이 실제로 작품세계와 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전쟁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전후사와 연결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일본이 식민지 국가로서 초래한 국가악에 대한 과약을 필요로 하는 점과, 또 하나는 오늘날 미국의 군사정책의 일익을 담당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조건의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점이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분단을 결정짓고 동북아시아의 냉전체제를 초래한 전쟁으로, 포츠담 체제와 관련시켜서 논할 때에 그 뚜렷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브루스 커밍스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으로 통하며, 일본에 있어서도 한국전쟁은 전후 부흥과 국제사회로의 복귀라는 움직임 속에서만 파악될 뿐, 아시아와의 관계라든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한국전쟁은 “단지 지나간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sup>3)</sup>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일본 전후문학과 한국전쟁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겨우 하나 들쭉 보이기 시작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이하던 해인 2003년에 국학자료원에서 『한국전쟁과 세계문학』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있다. 여기에 실린 이즈 도시히코(伊豆利彦)의 「한국전쟁과 일본문학—『記念碑』 『玄海灘』 『風媒花』—」라는 논문이 특히 주목된다. 이 논문에서는 훗다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을 비롯하여 부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달수(金達壽)의 『현해탄』, 다케다 다이준(武田泰淳)의 『풍매화』를 중심으로 역사적 관점, 그 중에서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가는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를 일본인의 입장에서 매우 양심적

3)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함께, 2005, 9쪽.

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카네 다카유키(中根隆行)의 「훗다 요시에(堀田善衛) 『광장의 고독』의 시선-한국전쟁과 동시대의 일본문학-」이라는 논문이 있다. 여기서는 한국전쟁 당시에 일본의 문학계에 일고 있던 반전평화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라든가 미군 점령하의 일본사회의 모순과 굴절된 정신을 바라보는 일본인 자신의 굴욕적 시선이 있었음을 밝히고, 이러한 동향 속에서 발표된 훗다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에 주목하고 있다.

두 연구 모두 일본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전쟁이라는 주제가 몇몇 일본지식인들의 내면에 양심적 반점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의 일본문학 연구자들도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현대사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 일본의 문학작품을 통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또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훗다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에 주목하고, 그 배경이 되는 한국전쟁과 거기에 얽힌 국제정세라든가 인간관계, 개인과 국가 등 일찍이 일본 근현대문학이 다루어 오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 II. 전쟁과 혁명-난세의 문학자

훗다 요시에에는 일본의 전후문학자 중에서도 국제적인 시야를 가진 행동과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주로 일본의 지식인 사회와 역사의 문제를 주제로 작품활동을 해 왔다. 그의 소설 대부분이 각 시기의 이른바 핫이슈와 긴밀한 관련을 지닌 문제작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연유에서이다. 그의 이력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훗다 요시에에는 1939년에 게이오(慶応)대학 법학부 정치학과에 진학하

여 그 이듬해에 문학부의 프랑스문학부로 전과했다. 194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구로다 기요시(黒田淸)가 주재하던 국제문화진흥회<sup>4)</sup>에 취직하여 이를 계기로 가와카미 데쓰타로(川上徹太郎),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 나카무라 미쓰오(中村光夫), 야마모토 겐기치(山本健吉) 등을 알게 된다. 그러나 훗다는 문학의 길보다는 정치, 특히 중국에 관심이 있었다. 바로 여기에 훗다 요시에가 전후문학자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다. 훗다는 국제문화진흥회에서 파견되는 형태로 해서 상하이로 건너가게 된다.<sup>5)</sup> 중국에 대한 관심은 그를 전후를 고민하는 문학자로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훗다 요시에는 국제문화진흥회에 있는 동안 중국어 공부와 병행해서 「루쉰(魯迅)전집」을 통해 중국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았다. 그 후 다케다 다이준(武田泰淳)의 「사마천(司馬遷)」(1943)이 나오고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의 「루쉰」(1944)이 세상에 나왔다. 그때까지 서양일변도였던 훗다의 내부에 중국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훗다의 상하이 행은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1945년 8월 5일경,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는 뉴스가 소련을 경유해서 중국 신문사에 들어왔다. 이틀 후에 국민당 기관지 「중앙일보(中央日報)」가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 내용을 호외로 냈다. 이 날로 일본의 상하이 지배는 끝이 나고, 그 해 11월에 훗다는 국민정부 중앙선전

4) 국제문화진흥회는 1934년에 국제간의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창립되어 전람회, 강연회, 연극회, 영화제작 및 배급, 출판, 도서실·자료실 운영, 문화인 파견 등의 업무를 행했다. 여기에 있던 이슈인 세이조(伊集院淸三)의 소개로 훗다는 요시다 겐이치(吉田健一)를 알게 되어 「비평」의 동인이 된다.(川西政明, 『昭和文學史·中卷』, 東京: 講談社, 2001, 486~487쪽.)

5) 훗다 요시에는 국제문화진흥회를 퇴직하고 1943년 10월에 軍令部臨時歐州戰事軍事情報調査部로 자리를 옮긴다. 1944년 2월에 동부제48부대에 소집되어 늑골골절로 도야마(富山) 육군병원에 3개월 입원한 후 5월에 소집 해제된다. 1945년 3월에 다시 국제문화진흥회로 복귀하여 중국 상하이에 파견된다. 바로 거기서 다케다 다이준을 만나게 된다. 그해 8월에 패전을 맞이하고 12월에 중국국민당 선전부에 징용된다.(久保田芳太郎編, 『堀田善衛年譜』, 『昭和文學全集 17』, 東京: 小學館, 1987, 1113쪽.)

부 대일공작위원회<sup>6)</sup>에 들어갔다. 훗다는 「중앙일보」와 영자신문 논설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그 원고를 프랑스 조계(租界)의 방송국에 가져가 방송했다. 상하이 국민당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소설가 훗다 요시에가 탄생되고 있었던 것이다. 1945년 3월 24일에서 1946년 12월 28까지 약 1년 9개월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즉 상하이의 시공간이 없었다면 훗다 요시에라는 작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훗다는 1945년 3월 10일의 동경 대공습 때는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이 소멸되는 것을 보았고, 그로부터 2주 후에 상하이로 건너가 거기서 패전을 맞으면서 일본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그는 지배와 점령자의 입장에서 갑자기 패자와 피점령자의 위치로 전락하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이 혁명과 전쟁의 세기에 있어서는 인간성 내지 휴머니즘은 그 자체로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유험이라는 현실과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sup>7)</sup>(이하, 번역은 필자)

훗다 요시에는 “현대의 최대 명제는 모든 의미를 포함해서 타자가 인간에 대해 범하는 유험에 있다”<sup>8)</sup>고 선언한다. 또한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대립물로 분열되어 대치와 갈등의 매커니즘 속에서 어떻게든 굴러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비극적 존재를 톱니바퀴에 비유하여 작품으로 형상화하기도 했다.<sup>9)</sup> 그 수많은 커미트먼트의 결과가 전쟁과 학살의 세기로

---

6) 당시 중일 양국의 치열한 정보전이 벌어지던 현상이었다. 국제문화진흥회는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훗다는 해군 비행기로 상하이에 입성하여 해군 관계 일을 돕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훗다가 대일공작위원회에 들어간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川西, 앞의 책, 491쪽.)

7) 堀田善衛, 『流血』, 『堀田善衛全集14』, 東京: 筑摩書房, 1975, 36쪽.

「この革命と戦争の世紀にあつては、人間性ないしヒューマニズムは、それ自体矛盾しているように見るとしても、流血という現実と別個には考えられないのである。」

8) 위의 책, 37쪽.

「現代の最大の命題は、あらゆる意味を含めて、他者が人間に對して犯す流血にある。」

9) 堀田善衛, 『齒車』, 『堀田善衛全集1』, 東京: 筑摩書房, 1974, 260쪽.

블리우는 유혈의 비극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평화헌법 초안이 발표되었으나 세계정세란 원래 동적인 것이다. 정세의 추이가 어떠한가에 따라 만일 이 평화헌법이 제시하는 노선에 따를 수 없게 되었을 때, 이것을 작성하고 지지했던 일본 지식계급은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인민 운동을 일으킬 만한 힘을 갖고 있는가. 이를테면 중국의 지식인들은 굴욕적인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조인 당시 5·4운동을 일으켜 죽음을 각오한 대중 운동에 의해 이를 거부했지만, 일본에서 그러한 일이 가능한가.<sup>10)</sup>

위 인용문은 훗다 요시에가 1952년에 발표한 「단층」이라는 작품의 일부이다.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실제로 훗다 요시에는 1945년 3월에 동경 대공습을 경험하고 나서 2주 후, 그러니까 패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상하이로 건너간다. 작가의 이런 체험이 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 안노(安野)는 이름 대로 안온한 타성에 젖어 있는 인물로, 작가인 훗다 요시에처럼 긴장감 넘치는 현장을 직접 찾아나서는 유형은 아니다. 그가 중국에 온 이유는 단지 중국어 학습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가끔 토론회에 나가 중국의 지식인들과 접하게 되는데, 위 인용

---

「それでいて裏へまわって一皮剥いでみれば、相拮抗するものは必ずどこかで齒車をがっちり食いあわせ、がらりがらりと人血を潤滑油として地球そのもののようにまわっているのです。私にはもう、歴史が前方へ進む何物かであるなどとは思えません。」(그래서 안으로 돌아가 한꺼풀 벗겨 보면 서로 길항하는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인혈을 윤활유 삼아 지구처럼 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역사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10) 堀田善衛, 「斷層」, 『堀田善衛全集1』, 東京: 筑摩書房, 1974, 399쪽.

「平和憲法の草案が發表されたが、世界情勢というものは元來動的なものである。情勢の推移如何によって、万一この平和憲法のさし示す路線に沿いえなくなった時、これの作成にあずかり、またこれを支持した日本知識階級は、この立派な憲法を守るために、死を賭してもこれを守るための人民の運動を起こすだけの力をもっているかどうか。例えば中國の知識人は、屈辱的なベルサイユ平和條約調印の際、五・四運動を起し、死を賭した大衆の運動によってこれを拒否したが、そのようなことは日本で可能かどうか?」

문의 질문은 그들의 단골메뉴 중의 하나이다. 안노가 비교적 일본의 젊은 지식인이라 생각하고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 안노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앞으로 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해 놓겠다고 왜 믿지 못하느냐면서 도리어 의심 많은 중국인들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복잡한 국제정세에 대해 상세하고 확실한 지식과 판단을 갖고 있는 중국의 지식인들에 대해서 일본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안노는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다. 청일전쟁에서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군국주의의 망령이 활개 치던 시대를 지나 격동의 50년대를 살아가는 일본의 지식인의 무책임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일본 지식인들의 속사정을 언제까지 눈감아 줘야 하는 건지 중국이나 우리도 반성해 볼 일이다.

그가 매일 스크랩하는 신문 논설에서도 당시는 아직 경찰예비대라는 것이 없었는데 경찰관이 무장하면 육군이라고 하고, 해상보안청이 생기면 해군의 부활이라고 하며 지금도 중국을 재침략할 듯한 발언을 하는, 그런 불신의 깊은 뿌리가 그에게는 슬프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sup>11)</sup>

당시 일본의 재군비 태세는 그것이 단순히 중국 지식계급의 의심 탓도 아니고 불신의 뿌리가 깊은 탓도 아니라는 것이 점차 확실해지면서 안노도 이를 부인할 수 없게 된다.<sup>12)</sup> ‘중국 각지의 주요 신문 잡지에 발표된

11) 앞의 책, 401쪽.

「彼が毎日切り抜く新聞の論説などでも、当時はまだ警察予備隊といったものがなかったのに、警官が武装すると陸軍だと云い、海上保安廳が出来ると海軍の復活だと云い、いまにも中國を再侵略しようなことをいう、そういう不信の根の深さを、彼は悲しくさえ思っていたのである。」

12) 맥아더는 1950년 연두성명에서 ‘일본헌법은 전쟁을 포기하고 있지만, 외국의 침략(공산주의의)에는 자위권은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이 성명은 일본의 추후 진로를 예시하는 발언으로, 단독강화나 전면강화나 선택을 강요하는 문제와 재군비의 찬반논란-전쟁과 평화의 선택을 강요하는 방위문제를 둘러싸고

대일 여론조사'에 직접 참여한 안노는 중국의 대일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험악하다는 것을 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당시 점령도시였던 상하이에서 만나는 중국 지식인들의 가열한 정치의식에 조금씩 눈떠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한 마디로 일본 지식인과 중국 지식인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괴리와 단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후에 나온 많은 지식인론의 출발점은 전쟁책임의 반성이었다. 중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지식인들이 통일전선의 중심이 되어 혹은 민중과 일체가 되어 과시즘에 저항했는데 왜 일본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느냐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 지식인의 고립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하나는 지식인 상호간의 고립이고, 또 하나는 민중으로부터의 고립이었다. 1951년 1월에 발표한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의 「지식인론」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일본의 지식인은 일본의 사회구조를 반영해서 기형화되어 있다. 그것은 전체사회의 두뇌작용을 기능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사회에 고정되어 있다. 지식인은 두뇌 노동자 혹은 기술인이 아니라 일종의 신분으로, 전근대적인 요소를 다분히 내포한다. 각각의 부분사회는 학계든 문단이든 이 또한 몇 개의 폐쇄적인 길드로 분열되어 있다.<sup>13)</sup>

1945년 일본의 패전과 미군 점령기를 거쳐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동

---

각계각층에서 논의가 비등했다.(城戸昇, 「詩と状況・激動の50年代—敗戦から60年安保闘争まで」, 『現代思想—戦後民衆運動史』第35卷第17号, 東京: 青土社, 2007.12, 251쪽.)

13) 竹内好, 「インテリ論」, 『竹内好全集 第六巻』, 東京: 筑摩書房, 1980, 209쪽.  
「日本のインテリは、日本の社會構造を反映して奇形化されている。それは全体社會の頭腦作用を機能的に代表するのではなく、實體的な部分社會に固定している。インテリは頭腦労働者、あるいは技術人でなくて、一種の身分であり、前近代的な要素を多分に含む。それぞれの部分社會は、學界にしろ、文壇にしろ、これまたいくつかの閉鎖的なギルドに分裂している。」

아시아 근현대사 속에서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일본인 자신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과거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일본이 행한 발자취를 보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일본에서 ‘동아시아 문학’이라는 것은 아직 관념으로서만 존재할 뿐 본격적으로 역사와 관련해서 문학 본래의 상징과 이미지들 창출해 가는 작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근현대문학을 논하는 것은 일본만의 맥락 혹은 한국만의 맥락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가시화하는 의미를 지닌다”<sup>14)</sup>는 점에서 ‘동아시아 문학’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 전개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서 일본 전후문학에 있어서 동시대를 그리고 있는 작가의 한 사람으로 훗다 요시에를 들고, 그 중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광장의 고독』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Ⅲ. 『광장의 고독』에 나타난 ‘국가와 전쟁’

#### 1. ‘광장’인가 ‘고독’인가

『광장의 고독』은 훗다 요시에의 출세작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1951년 하반기의 아쿠다가와상(芥川賞) 수상 작품으로, 그 이듬해 열린 수상 기념 축하회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이 이제부터 획득해야 할 ‘조국’이란 좀 거창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있어서의 평화의 조건을 갖춘 그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야마모토 겐기치씨가 말한 대로 ‘중국의 문학자는 민중을 발견하고 있는데 훗다 요시에는 아직’이라는 취지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

14) 안천, 「일본 전후 문학담론과 아시아적 시각-역사적 상상력과 자본주의적 상상력-」, 『창작과비평』, 2011년 겨울호, 81쪽.

합니다.”<sup>15)</sup> 훗다가 말하는 ‘일본에 있어서의 평화의 조건’이란 “어떤 형태로든 중국을 침략하지 않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일체의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sup>16)</sup>이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청일전쟁을 비롯해서 중국을 누차 침략해 왔다. 일본은 경제와 산업구조가 팽창단계에 도달하면 대륙 진출에 대한 망상을 침략의 형태로 도발해 온 것이다. 훗다는 이러한 역사의 숙명적 패턴에 주시하면서 이를 자신의 문학적 모티프로 삼고 있다. 이처럼 그는 역사의 전환기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적나라한 모습과 그 모순들을 단순히 국제문제로서가 아니라 일본인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나는 밥 문제와, 일본이 행한 전쟁의 실체가 약탈전쟁이라는 것(상하이에 와서 처음 알게 된 사실), 이 두 가지에 마음을 빼앗겼다.<sup>17)</sup>

소설이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목 바로 밑에 ‘Commit’라는 영단어를 직접 사전에서 인용하여 그대로 적어 놓은 부분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Commit [A] (죄·과) 등을 행하다, 범하다 … [B] 의탁하다, 위임하다, 언질을 주다, 위태롭게 하다, 위험에 빠지게 하다 … [C] 누를 끼

15) 栗原幸夫, 「解題」, 『堀田善衛全集1』, 東京: 筑摩書房, 1974, 502쪽.

「私たちがこれから獲得すべき『祖國』とは、口はばつたいようですが、先に申しましたところの、日本にとっての平和の條件を備えたそれだけでなくて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それは山本健吉さんの申されました、中國の文學者は民衆を發見しているが、堀田善衛はまだまだ、という御趣旨とも關係のあることであろうと思います。」

16) 위와 같음

「いかなる形でも中國を侵略しないこと、しないで済むような工合に、一切の構造をつくりかえること」

17) 堀田善衛, 「上海」, 『堀田善衛全集12』, 東京: 筑摩書房, 1974, 151쪽.

「かくて私は飯のことで、上海に来てほとんどはじめて知ってたに近い日本の行っていた戦争の實體, 掠奪戦争というもの、この二つのことに心を奪われていた。」

치다 … That will commit us. 그럼 우리가 위험해진다…<sup>18)</sup>

여기서 ‘Commit’란 단어를 써야만 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광장’에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고독’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커미트<sup>19)</sup>란 용어가 ‘광장의 고독’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즉, ‘광장’은 국가·사회·국제관계·세계·조류·금융·사상 등의 개념과 연결되며, 반대로 ‘고독’은 개인·가정·인간관계·친구·화폐·대출금·감정 등과 연계를 맺고 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Commit’란 단어를 생각해 볼 때 기가키가 임시직으로 신문사에 나와 일하는 것과 그 배경으로 한국전쟁이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새 별들은 사라져 버리고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빛은 크레물린 광장이나 워싱턴 광장 같은 그런 곳에만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거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신을 느꼈다. 태어나 처음으로 그는 기도했다. 렌즈의 초점을 최대한 끌어당기는 듯한 마음으로 우선 이렇게 적었다.

광장의 고독이라고.<sup>20)</sup>

- 
- 18) 堀田善衛, 「廣場の孤獨」, 『堀田善衛全集1』, 東京: 筑摩書房, 1974, 293쪽.  
「Commit [A] (罪·過) などを行う, 犯す … [B] 託する, 委す, 言質を与える, 危くする, 危殆に陥らしめる … [C] 累を及ぼす…That will commit us. それでは我々が危くなる…」
- 19)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Commit’라는 단어는 미세하지만 조금씩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이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한글로 ‘커미트’라고 쓰기로 한다.
- 20) 堀田, 「廣場の孤獨」, 362쪽.  
「星々はいつの間にか消えてしまって, 空はいつものように暗かった。光は, クレムリンの廣場とかワシントンの廣場とか, そういうところにだけ, 虚しいほどに煌々と輝いているように思われた。そして彼はそこにむき出しになっている自分を感じた。生れてはじめて, 彼は祈った。レンズの焦点をひきしぼるような氣持で先ず書いた。廣場の孤獨と。」

이 작품은 한국전쟁 시대를 배경으로 신문사를 무대로 해서 일본인 각자의 운명이 국제정치에 맞물려 있는 현실을 날카롭게 파악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훗다 문학에 있어서 본격적인 출발점이 된 셈이다. 그 출발점은 위 인용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공 기가키가 ‘태어나 처음으로 한 기도’와도 같은 것으로, 그의 전작품에 일관되어 있는 기본 자세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기도는 “제2차대전 후의 이른바 세계를 동서로 양분한 냉전체제의 시작이라는 현대사에 있어서의 새로운 난세의 도래를 앞둔 기도라는 것을 표징”<sup>21)</sup>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미국의 점령하에 있었다. “중국혁명이 승리하면서부터 동아시아에서 중·소와 미국이 대결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공산당·제일조선인과 GHQ·요시다(吉田) 정부 간의 대결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이러한 기류와 결합하면서 한국전쟁은 시작”<sup>22)</sup>된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일본은 미국의 병참기지가 되고, 8월에는 맥아더의 지령에 의해 경찰예비대(후에 보안대, 자위대로 재편된다)가 설치되면서 재군비의 역코스를 걷게 된다.

이처럼 『광장의 고독』은 일본이 미국의 점령하에서 재군비의 역코스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소설이다. 이 소설은 “혼란한 시대에 지식인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답을 제시하고 있다”<sup>23)</sup>는 점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전쟁이 전후의 일본문학에 던진 파문은 매우 엄중한 것이었다. 소위 문학이라는 것은 주인공 한 사람의 자기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주인공 자신과 그를 둘러싼 국가와 사회,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이면까지 온통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한국전쟁이라는 정치적 소재를 가지고 그것에 얽힌

21) 山根 獻, 『「國家と革命」の世紀と堀田善衛』, 『堀田善衛—その文學と思想』, 東京: 同時代社, 2001, 153쪽.

22) 와다 하루키 저, 서동만 역, 『한국전쟁』, 창작과비평사, 1999, 133쪽.

23) 武田泰淳 『堀田善衛に關すること(4)』, 『堀田善衛全集15 月報12』, 東京: 筑摩書房, 1975. 5, 7쪽.

한국과 일본, 일본과 아시아, 일본과 미국 등 국제관계 속에서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책임을 묻고 있다. 결국 전쟁과 국가라는 ‘광장’을 모티프로 해서 개인의 내면적 실존의 문제를 ‘고독’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Stranger in Town”…

—임의의 이방인(Stranger)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써 보면 어떨까. 이 임의의 인물이 주위의 교차하고 대립하는 현실에 대응하면서 각자의 입장을 선택한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접하고 선택된 그 입장과 위치가 이번에는 반대로, 말하자면 대각선 방향으로 이인물의 위치를 결정해 간다. (중략) 그리하여 내 존재의 중심에 있는 허점을 현실 속으로 끌어내 보면 나는 육신의 존재인 나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예견불능한 지역, 태풍의 눈, 그것은 인간에 있어서는 혼이라 불리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것이 죽어 있다면 다시 불러내야 한다. 이 소설의 제목은 그래, 우선은 Stranger in Town 이것을 의역하여 ‘광장의 고독’이라고 한다.<sup>24)</sup>

흔히 전쟁에 있어 일반 국민은 희생자다. 그런데 일본은 희생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였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일본 스스로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해도 전쟁으로 인해 풍요로운 생활을 향수하고 있는 한, 그들은 가해자라는 혐의를 깨끗이 벗어던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각하지 못한 채 전쟁에 동원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

24) 堀田, 「廣場の孤獨」, 341쪽.

「“Stranger in Town”…

—任意のStrangerを主人公にして<小説>を書いてみたらどうか. この任意の人物が, 周囲の交叉し 對立する現實に對応しつつおれの立場を選ぶ. 様々な事件や事故に接して選ばれたその立場位置が, 今度は逆に, いわば對角線的に, この人物の位置を決定してゆく. (中略) こうしておれの存在の中心にあるらしい虚点を現實のなかにひき出してみれば, おれは生身の存在たるおれを一層正確に見極めうるのではないか. 予見不能の地域, 颶風の眼, それは人間にあっては魂と呼ばれるものではないか. もしそれが死んでいるならば, 呼びかえさねばならぬ. この<小説>の題名は, そうだ, ひとまずStranger in Townこれを意譯して, 廣場の孤獨, とする.]

에 협력하면서 가해자가 된 ‘임의의 인물’인 것이다.

여기서 기가키는 한국전쟁은 분명히 해방전쟁이라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미국의 점령하에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북한을 적으로 단정하는 입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광장의 고독』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역사적 순간의 신문사 섭외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먼저 외국에서 발신되어 오는 기사 가운데 ‘태스크 포스’라는 단어를 ‘적의 기동부대’라고 번역하는 것을 놓고 ‘적? 적이란 게 뭐지, 북한이 일본의 적인가?’라는 화두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 작품이 씌어진 1951년은 GHQ에 의해 적색추방령(레드퍼지)<sup>25)</sup>이 단행된 직후이다. 이 무렵 일본의 좌익 진영은 한국의 이승만 정권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문제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60~70년대 박정희 정권까지 쭉 이어졌다.

이 소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의 좌익과 그 동조자들은 북한을 ‘적’으로 의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비판의 대상은 오로지 미제국주의와 남한 정권이었다. 북한은 지상낙원, 남한은 자유가 없는 지옥이라는 풍조를 매스컴과 지식인이 나서서 만들어내던 시대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그후의 북조선귀국사업<sup>26)</sup>에 이용되고, 천리마운동<sup>27)</sup>이라든가 「꽃을 파는 소녀」<sup>28)</sup>라는 영화 등으로 왜곡된 이미지를 증폭시켜 나가게 된다.

25) 한국전쟁이 발발한 다음날, 이를 비판하고 반전·평화운동을 호소하는 공산당 기관지 『アカハタ(赤旗)』의 30일간 발행정지와 그후의 무기한 정지로 그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원천적으로 활동을 봉쇄한 것이 레드퍼지였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전쟁에 관련한 군국주의자와 반민주주의자로 지목하여 공직에서 추방했던 A급전범 및 군인 등의 공직추방을 해제하고, 경찰예비대 창설을 명령했다.(城戸, 앞의 책, 253쪽.)

26) 「在日朝鮮人の歸還事業」(<http://ja.wikipedia.org/wiki/2015.4.14>)

27) 「千里馬運動」(<http://ja.wikipedia.org/wiki/2013.3.9>)

28) 「花を賣る少女」(<http://tetsu-eiga.at.webry.info/201012/article-19.html/2010.12.20>)

그럼 여기서 잠깐 이 소설에 등장하는 미국인 기자 하워드 헌트의 눈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에 의하면 일본 지식인들은 사르트르에 대해서는 프랑스인 이상으로 잘 알면서, 정작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은 놀랄만큼 감상적이고 유아적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렇게 덧붙인다.

어떤 이는 일본의 고립과 고독을 강조하지만, 긴박한 정세,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어디에도 고립이나 고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혹 깨닫고 있으면서도 눈감아버리려고 한다. 또 어떤 이는 민주주의도 생활수준도 안전보장도 자유도 그 모든 것이 미국의 원조에 달려 있다. 심지어는 미국의 원조 없는 일본은 차마 사랑할 수 없다고까지 말한다.<sup>29)</sup>

여기서 말하는 고립이나 고독은 미 점령국으로부터 일본의 독립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후 일본사회에 있어서 미국이란 존재는 한 마디로 특권적이었다. 그들은 사회·문화·경제 모든 면에서 미국의 간섭과 영향 하에 있었다. 현재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만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따지지 않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일본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전후 70년이 되는 지금도 지식인의 역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미국의 관점이 일본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셈이다. 게다가 현재의 아베(安倍) 정권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주장하며 전후를 없던 일로 하자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 손잡고 미국의 영향 하에 모든 일을 처리해 온 전후를 없던

29) 堀田, 「廣場の孤獨」, 339쪽.

「或る者は日本の孤立孤獨を強調するが、緊迫した情勢、特に朝鮮戦争以後にはどこにも孤立も孤獨もありえないことに氣付かず、氣付いていながらも敢て眼をつぶろうとする。或る者はまた民主主義も生活水準も安全保障も自由も、一切が米國の援助にかかっている。換言すれば米國の援助のない日本は愛するに耐えない、とまで極言する。」

결로 하고 새로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후사의 과정을 무화시켜 버리고 전후를 깨끗이 청산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속셈은 전후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전후에 나타난 좌익 이데올로기에 의해 ‘민족의 독립’이라는 슬로건이 나오긴 했으나, 그들이 말하는 민족은 우리처럼 ‘자연적인 생활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근대주의의 산물’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시아의 내셔널리즘, 특히 중국을 모델로 해서 일본에 적용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다케우치는 외국의 동향을 모델로 해서 일본의 역사를 개혁하려고 하는 정신의 피점령상태를 꼬집고 있다. 패전후 미군의 점령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본의 현실적 과제로 떠오른 1951년 당시 이미 그는 일본의 전후동향의 맹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내셔널리즘과의 대결을 꺼리는 심리는 전쟁책임의 자각이 부족하다는 것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심부족이다. 양심부족은 용기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피로 얽힌 민족을 잊으려고 한다. 나는 일본인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주저한다. 그러나 잊는다고 해서 피가 깨끗해질 수는 없다.<sup>30)</sup>

다케우치는 이 말을 하기에 앞서 “근대주의가 민족주의와의 대결을 꺼린 것이 반대로 일본의 민족주의를 더욱 강경한”<sup>31)</sup> 방향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본 민족이 아시아 민족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용기를 갖고 현실의 밑바닥까지 깊숙이 들어가 그 절망을 실감하라는 것이

30) 竹内好, 「近代主義と民族の問題」, 『竹内好全集 第七巻』, 東京: 筑摩書房, 1981, 36쪽.

「ナショナリズムとの對決をよける心理には、戰爭責任の自覺の不足があらわれているともいえる。いいかえれば、良心の不足だ。そして良心の不足は、勇氣の不足にもとづく。自分を傷つけるのがこわいために、血にまみれた民族を忘れようとする。私は日本人だ、と叫ぶことをためらう。しかし、忘れることによって血は清められない。」

31) 위의 책, 32쪽.

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이라 하더라도 한 발 한 발 손으로 더듬어서라도 직접 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근대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를 모방해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독립이 아닌 노예의 길이기 때문이다. 독립을 위해서는 자기 죄를 자기 손으로 직접 씻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족주의이다.

한편 기가키는 우연히 스위스 신문에서 작가 사르트르와 모리악, 지이드와의 논전을 읽는다. 이 신문은 사르트르가 ‘좌익 내지 진보적 작가·시인들과 프랑스 정부에 대해 중공을 승인시키고 중공의 국제연합 가입 반대를 정지시켜 국제관계의 긴장완화에 공헌하고, 인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을 원조할 목적으로 평화와 독립 프랑스를 위한 어필을 제창했다’는 기사와 함께 거기에 가톨릭 작가 모리악이 가담했다는 기사를 전하고 있다.

미 국방성이 독립이라는 말을 프랑스의 분파행동이라고 본다면 프랑스는 소비에트 기계화 사단에 유린당해 버릴 것이다. 사르트르나 지이드에게 자유인으로서 살고 자유인으로서 죽고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생각하며, 또 그것을 쓸 기회와 자유가 있고 스스로 독립 프랑스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무력을 배경으로 하는 국제연합이 그들의 서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sup>32)</sup>

이것은 모리악의 입장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기가키가 임시로 일하고 있는 신문의 입장은 모리악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 그것을 돕는 자신 역시 모리악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다시 말

32) 堀田, 「廣場の孤獨」, 298쪽.

「米國防省が獨立という言葉をフランスの分派行動のあらわれと見たら、結局フランスはソビエト機械化師団に蹂躪されてしまうであろう。もし、サルトルやジイドに、いまなお自由人として生き自由人として死に、自ら眞實と信じることを考えかつ書く機會と自由があり、自ら獨立フランス人と稱することが出來るとすれば、それはアメリカの武力を背景とする國際連合が、彼らの書齋を守っているからだ。」

하면 커미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가키는 생각한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전쟁 무렵 일본에서는 보도기관을 비롯하여 전 산업에 적색추방령이 발동되면서 미쿠니나 다치카와 같은 공산당원들이 모두 추방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조합은 헌법,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을 방패삼아 저항해 보지만 당국은 초헌법적 조치에 의해 사실상 그들에게 쿠데타로 엄습한 것이다. ‘전면강화는 기대 희박, 군사기지 반대는 이상론’<sup>33)</sup>이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기가키가 독백하는 장면이 있다.

(前略)사람이 어찌됐든 그를 둘러싸고 선택을 강요하는 것들과 전면적으로 서로 대화하여 완전한 독립을 유지해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어느 쪽이든 한쪽에 커미트해서 그 대립자와 대립하는 쪽이 훨씬 쉬운 일이다.<sup>34)</sup>

주인공 기가키(木垣)라는 인물은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이성적인 입장을 관철하려 하지만, 이 격렬한 대립의 한 가운데에서 그러한 태도는 자기 자신을 관념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생각에 판단을 유보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마저도 전쟁을 지지하는 쪽으로 크게 기울어버린 신문사에서 일을 하는 이상, 전쟁에 커미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광장의 고독』은 한국전쟁이라는 소재를 통해 주인공의 물리적·정신적 빈곤을 강조하면서 일본인들의 내

3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전후 일본에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가져와 국제 사회 복귀의 토대가 되었다. 그 반면에 일본의 군국주의와 식민지 지배 피해자인 아시아를 배제하여 일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차단했다. 그 결과, 근린 아시아와의 화해를 통해 새로운 지역적 관계질서를 무시하고 제국주의와 침략, 그리고 착취로 인한 상처만 더 키우는 유해한 결과를 안겨 주었다.(ジョン・W・ダワ外, 『轉換期の日本へ―「ボックス・アメリカナ」か「ボックス・アジア」か』, 東京: NHK出版新書, 2014, 23~24쪽. 참조)

34) 堀田, 『廣場の孤獨』, 355쪽.

「(前略)人が何であれ彼をとりまいて選擇を迫るもの一切と全面的に話し合いをつけ、十全の獨立を保ってゆくことが如何に困難であるかを思い知らされた。いずれか一つにコミットしてゆき、その對立者と對立することの方が、安易なのである。」

면과 심리를 되돌아보고 지식인들이 겪고 있던 내면적 실존의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한국전쟁이라는 소재는 훗다 문학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등 전후 구조의 복잡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다시 신문사에 나오게 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나)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가정(처자)·국가(사회)를 생각하며 그 속에 얽힌 전후의 문제를 성찰하고 있다.

## 2. ‘광장’의 이방인

『광장의 고독』에는 보이지 않는 힘에 번롱당하는 여러 유형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방인(Stranger)이라는 것이다. 우선 기가키(木垣)라는 인물은 2년 전에 신문사를 그만두고 내연의 교코(京子)라는 여자와 동거하며 번역 하청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각 신문사에서 ‘동아부 및 총사령부’의 전황 발표를 다루게 된 섭외부가 갑자기 바빠지면서 임시로 불러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미국을 대변하는 하워드 헛트라는 기자는 바로 몇 시간 전에 한국전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일본에 들어온 인물로, 전쟁의 당사자(미국인이라는 신분)로서 거침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민당 계열의 중국인 기자 장궈서(張國壽)는 대일항전 후에도 충칭(重慶)에서 처자를 데려오지 못하고 내전이 시작되고 나서야 처자를 상하이로 데리고 나왔다. 하지만 상하이도 중공군에 접수되자 또다시 타이페이(台北)까지 가기는 싫다고 하여 지금도 상하이를 떠나지 않고 있는 처자를 둔 인물이다. 또한 교포 2세인 젊은 기자 도이(土井)는 전쟁 중에 교환선으로 일본에 돌아와 일본 헌병대 통역으로 커미트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남자이다. 이처럼 등장인물 대부분이 돌아가야 할 고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외국을 떠돌아야 하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

그밖에 미쿠니(御國)와 공무국의 윤전기를 담당하는 다치카와(立川)라는 인물은 공산당원으로 등장한다. 그들은 탄압과 저항에 의해 긴밀한 연대조직 속에서 생활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룹이다. 미쿠니는 기가키에게 입당 의사를 타진하기도 한다. ‘고독’이라는 단어에 줄곧 신경이 가 있는 기가키에 반해서, 미쿠니는 국제정치라는 것은 완전히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 버린 곳에서 전쟁을 유일한 리얼리티로 삼은 괴물적 논리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기가키는 ‘그의 논리에는 애매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논리는 일상인의 논리가 아니라 영구투쟁하는 자의 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배후에는 선명한 이분법에 의한 단언적 언어행위의 수행패턴이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을 회의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기가키의 내연녀 교코는 독일대사관의 ‘상하이 정보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때 가깝게 지냈던 중국인 청년이 사실은 충칭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패전후에야 알게 되고, 또 그녀는 일본 헌병대에 강제로 끌려가 독일의 동향도 털어놓아야 하는 고충을 겪은 인물이다. 말하자면 ‘의식하지 않은 3중스파이’ 노릇을 했다는 커미트가 되는 셈이다. 그녀는 격심한 후회 때문에 고도의 신경쇠약을 앓고 있다. 또한 하라구치(原口)라는 인물은 정계와 재계의 보스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떳떳치 못한 행동에 질려 회사를 그만두고 경찰보안대에 들어가 첩외와 정보로 커미트하는 체제내 유형의 인물이다. 그는 기가키에게도 이 일을 권유한다.

이와 같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생활인으로서의 한 개인이 국제간의 문제에 커미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소외되고 동요되는 인간 군중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전후 일

본에 있어서 한국전쟁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폐허 속에서 쓰러져 가던 일본이 전쟁특수를 누리면서 부흥의 길로 들어서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 이전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좋은 싫든 어떤 일에 종사하며 그것으로 생업을 이어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 쪽에서 보면 이른바 동족상잔의 아픔을 초래한 비극이었지만, 일본 쪽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훗다 요시에는 기가키가 만났던 일련의 현실적 선택지가 어떤 것이고, 또 거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즉 커밋했는지 안 했는지, 커밋하지 않았다면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방인(Stranger)의 또다른 특징은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인간이 위기 상황에서 만나는 일련의 선택지 앞에서 회의적인 태도로 방황하고 고민하는 점이다. 이들의 주변성은 국가를 갖지 않은 이유로 국가를 가진 사람과는 다른 존재양식 내지는 탈중심적 시점을 갖게 한다. 훗다 요시에는 국가로부터 소외된 인간, 즉 이방인(Stranger)으로서 탈중심적 시점에 의해 스스로를 점점 소외시켜 가는 국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 혹은 민족과 결부되는 유기적인 끈을 단절하고 지배적 규범을 위로부터 강요하는 국가를 거부하며, 또 그것에 계속 저항하는 의식으로 전환해 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가로부터 소외된 인간이 바로 이방인(Stranger)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인물을 통해 주변의 탈중심적 입장에서 스스로를 점점 소외시켜 가는 국가를 묘사함으로써 그것이 괴물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미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공통점이 이방인(Stranger)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때,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틸피츠다. 구 오스트리아의 남작이었던 그는 국가에 소외된 탈 국가의 전형적인 인물로서 나치에서 추방된 망명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사는 땅과 계급을 잃어버리고 돌아가야 할 국가마저 갖지 않은 인간으로 등장한다. 또한 그는 ‘국가든 뭐든 엄청난 규모의 것이 지각변동을 일으켜 함몰하는 그 현장에 늘 존재하는 남자’이며 ‘대규모의 몰락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는 장의사 같은 남자’이다. 기가키와는 이미 상하이 시절부터 아는 사이였던 이 남자가 일본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발견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소외당한 털피츠라는 인물은 훗다 요시에의 국가에 대한 사상을 그대로 우의화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인용문에서 ‘나’를 ‘국가’로 바꾸면 그대로 의미가 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국가-인용자, 이하 생략)의 계급, 귀족 따위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나(국가)의 존재 그것이 이미 하나의 허구야. 나(국가)는 이미 20년 동안 각지의 옷들을 다 입어 왔네. (중략) 옷 한 벌로 인간이 바뀐다면 인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지. 하지만 나(국가)는 죽고 싶지 않아. 물론 이것은 언제 죽어도 좋다는 뜻이기도 하지. 그래서 나(국)는 동란이 일어나 인간의 새로운 피가 흐르는 곳에 와서 몸을 데운다네. 동란, 그것은 결국 나(국가) 자신이야. 다시 말해서 동란이나 혁명은 인간적 이유로 시작해서 비인간적 결과를 낳지. 나(국가)는 그 결과인 셈이고. 동란이나 혁명의 비인간적인 결과 속에 인간적인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헛된 노력 그 자체가 현대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지.<sup>35)</sup>

35) 堀田, 「廣場の孤獨」, 329쪽.

「わしの階級, 貴族などというものは世界中どこにも存在しておらん. わしの存在そのものが, もはや一つの虚構なのじゃ. いかさまだ. わしはもう二十年くらいのあいだ, 様々の服を着更えて来た. (中略) 一着の服で人間が変るものなら, 人間など存在しないも同然だろう. しかしわしは死にたくない. もちろんこれはいつ死んでもいいちう意味でもある. だからわしは動亂が起って人間の新しい血の流れるところへ来て身を温める. 動亂, それはつまりわし自身なのだ. もう一度云いかえれば, 動亂や革命は, 人間的理由に始まって非人間的結果を生む. わしはその結果なのだ. 動亂や革命の, 非人間的な結果のなかに, なおかつ人間的なものをつくり

여기서 보면 사회에 대해 스스로 소외되어 가는 권력인 국가의 허구성 이 나(틸피츠)에 의해 절묘하게 구현되어 있다. 이미 살펴본 대로 훗다 요시에는 문학적 출발부터가 남다르다. 그는 동란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여 질서의 틀이 근저에서부터 동요되고 그 첨예한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는 반란(내란)이 동시진행하는 작품세계를 선보여 왔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제인물은 주인공을 비롯하여 어떤 식으로든 국가에 소외당한 이방인(Stranger)이라는 점에서 공통하고 있다. 그들에게 덮쳐오는 국제정세 또한 괴물스러운 흥모를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에 대한 훗다 요시의 냉철한 시선을 통해 국제정세라는 이름의 괴물과 동란의 저변에서 점점 소외되어 가는 일반 군중들의 모습이 부각되어 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작품은 매우 정치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정치라는 것이 순수하게 국내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불가피하게 국제정치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관계 속의 일본 및 일본인을 그린 이 소설을 한국전쟁과 연관해서 분석해 보는 것은 나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훗다 요시의 국제정치의 감각이나 시야는 패전 당시 상하이에서 역사적 현장을 목격하면서 형성되었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대로이다.

훗다 요시에 문학에 있어서 상하이 체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그곳에서의 패전체험은 그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첫째는 서구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일본의 근대화가 사실은 아시아 대륙의 침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며, 둘째는 전쟁후 민족적 독립과 혁명을 쟁취한 중국 역사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일본 지식인들은 그 전쟁 혹은 패전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조국상실=이방인’으로서의 자각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훗다 요시의 문학에는 다른 전후문학자와는 구별되는 큰 차

---

上げようとする、見方によって徒らな努力、その努力自体の中にしか現代の希望はない。」

이점이 있다. 천황 중심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고의 틀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일본 근대문학의 토양이었다고 한다면, 훗다 요시에의 경우는 그 틀을 과감히 깨고 나온 몇 안 되는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물론 전후문학에 있어서도 전전의 천황제나 그 사회 혹은 ‘집’에 대한 개인의 저항, 또는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해방이라는 차원에서의 주제를 다룬 문학은 있었지만, ‘국가와 전쟁’이라는 시각에서 작품화할 수 있었던 작가는 정말 드물었다. 이에 반해서 훗다 요시에는 21세기에 인류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국가와 전쟁’이라는 크고 무거운 주제로 일관하고 있다.

#### IV. 맺음말

훗다 요시에의 소설 『광장의 고독』의 배경에는 메이지(明治) 이후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해 왔던 역사가 있다. 그것은 일본의 근대사이기도 하고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근대사이기도 했다. 이 소설에서는 1950년대의 냉전시대를 대표하는 한국전쟁 당시의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사회(광장) 및 그 속에서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고독)의 현실을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다.

청일·러일전쟁, 한국병합, 만주사변으로 이어지는 일본군의 전쟁 경로를 보면 일본은 마땅히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일본이 재군비의 역코스를 걷게 되면서 아시아에 대한 가해자가 되려 한다는 것이 조금씩 자각되기 시작하면서 반전평화운동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생각일 뿐, 가해자로서의 일본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넘어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까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들의 본성임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에 종속되어 다시 아시아를 적대하는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광장의 고독』은 이런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개인의 선택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커미트먼트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근현대사 속에서 일본 전후문학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인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훗다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을 중심으로 전후 일본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우선 훗다 요시에의 상하이 체험, 즉 중국 상하이에서 국민당계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정치적 체험과 패전체험은 그의 문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패전 직후 상하이에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사라지는 경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국가라는 중심이 아니라 국제정세라는 주변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이방인(Stranger)이라는 점이다. 또한 그들은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상태에서도 커미트먼트의 문제로 늘 고민하고 방황해야 하는 지식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소설은 한국전쟁이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훗다 문학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역사인식과 대미 관계 등 전후구조의 복잡함이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개인(나)의 문제와, 또 그것을 매개로 한 가정(처자)의 문제, 국가(사회)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전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전후문학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후 일본의 재군비라는 역코스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미군 점령하의 일본사회의 모순을 그린 이 소설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과제를 던지고 있다. 1945년 일본의 패전과 미군 점령기를 거쳐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속에서 일본인

자신들은 전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전후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관련해서 전후의 근대주의가 민족주의와의 대결을 꺼린 것이 반대로 일본의 민족주의를 더욱 강경한 방향으로 몰고 갔다는 다케우치 요시미의 주장도 경청할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내셔널리즘과 민족이라는 주제 역시 일본의 전후문학 및 전후사에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전후 70년이 되는 현재의 일본과 훗다 요시에가 『광장의 고독』에서 폭로한 한국전쟁 시기의 일본이 오버랩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소설의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堀田善衛, 「廣場の孤獨」, 『堀田善衛全集1』, 東京: 筑摩書房, 1974.
- \_\_\_\_\_, 「齒車」, 『堀田善衛全集1』, 東京: 筑摩書房, 1974.
- \_\_\_\_\_, 「上海にて」, 『堀田善衛全集12』, 東京: 筑摩書房, 1974.
- \_\_\_\_\_, 「流血」, 『堀田善衛全集14』, 東京: 筑摩書房, 1975.
- \_\_\_\_\_, 「斷層」, 『堀田善衛全集14』, 東京: 筑摩書房, 1975.
- 나카네 다카유키, 「훗타 요시에(堀田善衛) 『광장의 고독』의 시선-한국전  
쟁과 동시대의 일본문학-」, 『한국어와문화』 제7집, 2010.
-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함께, 2005.
- 안천, 「일본 전후 문학담론과 아시아적 시각」, 『창작과비평』, 2011년 겨울호.
- 와다 하루키 저, 서동만 역, 『한국전쟁』, 창작과비평사, 1999.
- 이기윤 외 엮음,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국학자료원, 2003.
- E.H. 카 저, 박종국 역, 『역사란 무엇인가』, 육문사, 1991.
- 川西政明, 『昭和文學史・中卷』, 東京: 講談社, 2001.
- 城戸昇, 「詩と状況・激動の50年代—敗戦から60年安保闘争まで」, 『現代思  
想—戦後民衆運動史』 第35卷第17号, 東京: 青土社, 2007. 12.
- 久保田芳太郎編, 「堀田善衛年譜」, 『昭和文學全集17』, 小學館, 1987.
- 栗原幸夫, 「解題」, 『堀田善衛全集1』, 東京: 筑摩書房, 1974.
- ジョン·W·다워외, 『轉換期の日本へ—「パックス・アメリカナ」か「パッ  
クス・アジア」か』, 東京: NHK出版新書, 2014.
- 竹内好, 「インテリ論」, 『竹内好全集 第六巻』, 東京: 筑摩書房, 1980.
- \_\_\_\_\_, 「近代主義と民族の問題」, 『竹内好全集 第七巻』, 東京: 筑摩書房, 1981.
- 武田泰淳 「堀田善衛に關すること(4)」, 『堀田善衛全集15 月報12』, 筑摩書房,  
1975.
- 中野信子他, 『堀田善衛—その文學と思想』, 東京: 同時代社, 2001.

## The Post-war Literature of Japan and the Korean War: With Focus of *The Solitude of the City Square* by Hotta Yoshie

Kim, Hyun Hee\*

This paper is aimed at tracing the history of the post-war literature of Japan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 of East Asia and examining the Korean War and the situations during and after the war with much focus on *The Solitude of the City Square* (1951) by Hotta Yoshie.

As the background of the novel, it presents the history of Japan's invasion of Asia, which was the modern history of not only Japan but also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China. This novel sharply portrays both the international affairs surrounding Japan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situation of the people who were agonizing in society at that time.

The word "commit" appears frequently in this novel in relation to two other major concepts: a "city square" symbolizing the state, socie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olitude" denoting individuals, families, and human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wo concepts, we can understand that there exists a parallel composition between the main character who works at a newspaper office as a temp and the ongoing Korean War as the background.

On a closer look, we can understand: 1) the issue of an individual ("I") through the action of the main character working at a newspaper office; 2)

---

\* Lecturer, Hanyang University

the problem of family (wife and children) and state (society); and 3) the stranger and the "post-war"society linked to the aforementioned elements. Therefore, the issue of the Korean War clearly shows the complexity of the post-war society in Japan including Japan's awareness of Asia and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is one of the major themes of Hotta Yoshie's world of literature.

In this respect, this novel poses a deep meaning for not only the Japanese but also the Koreans living in the present times in that it depicted the self-contradiction of the U.S. Forces-occupied Japanese society as well as the criticism of Japan which is taking the reverse course of post-war rearmament. We can understand the value of this novel in that the situation of Japan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some 70 years ago is depicted in parallel with Japan of today.

Key words: Korean War, Post-war Society, State, Commitment, Stranger

필자 E-Mail: sobury@hotmail.com

투고일: 2015년 4월 16일 / 심사완료일: 2015년 4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5년 5월 7일